

스승님께 드리는 '100km 마라톤 선물'

전남대 심리학과 학생들
이종목교수 꿈 이뤄주려
50명이 2km씩 이어 달려

전남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퇴임을 앞둔 교수가 평소 품어왔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달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심리학과 학생들은 14일 오후 4시30분 사회대 앞에서 학생 50명이 학내를 돌며 각각 2km를 이어 달리는 '100km 마라톤'에 도전한다.

이 행사는 심리학과 학생들이 이종목(64) 교수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한 것.

이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수차례 42.195km를 완주해온 마라톤 매니아. 이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은 뛰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가 있다. 가능하다면 재직 중에 100km에 도전하고 싶다. 마라톤은 이를 수 없을 것 같지만 인간이 이뤄내야 할 것 같다는 의지가 담긴 희망이자 목표"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 1월 목디스크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더 이상 마라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후 스승의 건강을 염려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태지면서 학생들이 직접 교수의 소망인 100km 마라톤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심리학과 4학년 이경문 학생은 "30여 년간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베풀기만 하신 교수님을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라며 "제자들의 100km 완주를 선물로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해 도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스승의 날 촌지 고민의 날

광주 일부 초등 교사들 촌지 수수 '여전'... 학부모 속앓이

안순일 교육감 교장들에 서한·권익위도 '근절' 권고

"스승의 날 촌지문제를 놓고 아내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주지 말라고 했고, 아내는 주겠다고 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41·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촌지 때문에 아내와 다투는 데, 자식 문제다 보니 이번에도 결국 담임교사에게 촌지를 줬다"면서 "교사들이 촌지를 전혀 받지 않는 학교도 있다던데, 그곳으로 전학을 보낼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특정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봉선, 풍암, 금호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주변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의 촌지 수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학부모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촌지를 쥐어짜는 구제적 액수까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촌지를 받지 않는 초등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예외"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교장의 촌지에 대한 단속 의지가 약한 학교들이 특히 심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서구의 몇몇 초등학교는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촌지 관행이 심각하다.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촌지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는 게 학부모들의 중론이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는 "교사들이 촌지를 일절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곤 설마했는데, 진짜로 받지 않더라"면서 "고마운 마음에 음료수를 들고 갔는

데 이마저도 사양하더라"고 말했다.

또 중·고등학교 등에선 촌지 수수 행위를 근절하자는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광주제일고 등은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과 교무회의 및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선생님께'라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수능성적 전국 1위를 차지한 '실력광주'의 명예가 촌지 등 불미스러운 사안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교사들을 잘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광주·전남 등 16개 시·도 교육청에 촌지근절을 위한 자율노력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촌지근절을 위한 교육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0분 해질 19시 28분 달돋이 23시 55분 달질 09시 08분

꽃가루 실은 봄바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내륙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 조금	12/28°C
목포	구름 조금	11/24°C
여수	구름 조금	14/23°C
완도	구름 조금	13/26°C
구례	구름 조금	9/28°C
해남	구름 조금	8/28°C
장흥	구름 조금	8/27°C
곡성	구름 조금	8/28°C
순천	구름 조금	12/27°C
영광	구름 조금	9/24°C
진도	구름 조금	10/25°C
전주	구름 조금	10/27°C
남원	구름 조금	8/27°C
옥산도	구름 조금	12/1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서	0.5~0.5m	목포 05:09	10:29
남해 서부 앞바다	서~서	0.5~1.0m	16:45	22: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여수 11:31	05:5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	17:3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6	15/20	14/25	14/27	14/28	15/29

사제간 서로 발 씻어주기

스승의 날 이색 행사

광주·전남지역 학교들이 스승의 날 '참뜻'을 되살리기 위한 이색 행사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동맹고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는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사제 동행 세족식' 행사를 갖는다.

정소지 동맹고 교장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사제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세족식을 하게 됐다"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스승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주일고와 대성여고는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모교 출신 명사 초청 특강과 '직업인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광주 국제고는 이날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6명의 학생에게 각 20만원씩 수여될 이 장학금은, 이 학교 교사와 전직 교장이 10년 넘게 심시일반 모은 5천 600여만원의 종자돈에서 나오고 있다. 15년째 이어오는 제자사랑 장학

금을 받은 학생만도 100명이 넘는다.

광주 삼육중·고교 교사와 학생은 이날 학교 교정을 벗어나 무등산으로 산행을 떠났다. 학생과 교사가 손을 잡고 '사제동행 등반'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에너지를 듣고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은 무등산 정상에서 스승의 노래를 합창하고 꽃다발 증정 등의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수피아여중은 이날 모든 교사가 제자들에게 급식 배식한다. 또 문흥중은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흥음악제를 열고, 주월초교는 전 학급에서 '1일 학부모 교사'를 모실 계획이다.

목포 흥일중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스승의 날 뜻 깊은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15일 목포 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힘든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이날 지체장애인과 노약자 100여 명의 식사 도우미를 하고, 복지관 목욕탕 청소 등을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교직원 장학회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 체험 재미있어요"

13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09 빛고을안전체험 한마당'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불꽃진화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 소방관들과 함께 물을 뿌리는 이들의 표정이 5월 햇살처럼 해맑다. 광주시가 주최한 이 행사는 15일까지 계속된다. /나원주기자 mjna@kwangju.co.kr

정광학원 문제 해결 시민대책위 구성

오늘 발대식 본격 활동

"교장 해임 때까지 시위"

교원 채용 비리 물의를 빚고 있는 정광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광주·전남교육연대와 전교조 광주

지부 등 모두 27개 단체로 구성된 '정광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정광고 정문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정광학원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정광중·고 교장에 대한 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 1개월이라는 '솔밭이' 징계만을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자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를 버린 행위인 만큼 광주 시민의 이력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1인 시위와 검찰 고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광학원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요구된 교장 2명에 대해 '해임' 대신 '정치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인·의붓딸 살해 조카 감금 성폭행

영암경찰 '인면수심' 40대 검거

"다른 남자와 동거 앙심"

하루 밤새 부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조카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암경찰은 13일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한 이모(43)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경 영암군 학산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 A(20)씨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4시간 뒤 집 식당에서 일하던 부인 B(42)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부인을 살해한 1시간 뒤인 13일 새벽 0시15분께 조카 C(여·23)씨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테이프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조카 C씨를 감금한 데 이

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한 친딸(23)도 집안에 감금했으나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딸과 조카가 도망가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B씨와 함께 살다가 지난 1984년께 헤어졌으며, B씨는 이후 다른 남자와 살면서 딸 A씨를 낳고, 이씨와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이 기간 B씨가 다른 남자와 살았던 데 원한을 품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껴 살해를 결심했으며 (아내가) 가장 행복해 할때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친딸 등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영암=박제신기자 pjs@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3세대 소라·세기보청기

1588-4401 / 02-222-4401